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 1년...실효성 ‘의문’

시행일 전 구매·이전 차량 미적용
직접 단속 無...정기검사로만 파악
구비 안해도 과태료 규정 등 없어
“자발적 동참 필요...제도·홍보 지속”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흡한 제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의 유예 기간 3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뒀야 한다.
앞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7인승 이상에만 적용됐으나,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초기 대처로 줄이기 위해 해당 법률이 개정됐다.
구비 대상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달리 진동·고온 등 시험을 거친 제품이어야 하며, 소방 당국은 유사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석 아래 등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의무가 5인승 이상 차량 중 지난해 12월 이후 새로 구매하거나 명의 이전이 이뤄진 중고차 등을 대상으로만 부여돼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처벌 규정이 소방시설법에 없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현실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소방청의 방침 역시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대목이다.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자가용 신차는 최초 등록 후 4년, 사업용은 2년이 지

나야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후 자가용은 2년마다, 사업용은 1년마다 받는 편이며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법 시행 1년간 적용 대상은 명의 이전이 이뤄진 중고차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또 정기 검사에서 소화기 미비치가 확인되면 시정 권고가 내려지는데, 차량 기능에 있을 때 내려지는 불합격 처분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도 문제다.
재검사를 받는다고 한들, 소화기를 차량 내 두

지 않아도 주행에는 문제가 없어 검사 때에만 갖추면 넘어갈 수 있다는 구명도 있다.
이렇듯 법은 시행됐지만 제도 곳곳에 있는 허점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 의무는 자발적 동참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라며 “모든 화재가 그렇지만 차량은 특히 초기 진압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큰 만큼, 지난해 12월 이전 등록 차량의 소화기 비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형우기자

지적장애인 임금 편취 염전주 구속기소

목포지청, 별도 준사기 2명
사법 브로커 등 총 4명 넘겨

10년 넘게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염전주와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을 편취한 또 다른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에 따르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관리구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대)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준사기 등 혐의를 각각 받는 A씨의 동생 B씨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법 브로커 D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E씨를 고용하며 9

천600만원 이상의 노무를 제공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2월 중 E씨에게 필요하지도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형제로부터 E씨가 입은 이 같은 피해는 지난해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후 E씨는 요양병원에 입소했는데, 이곳에선 C씨로부터 보증금 명목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당했다.
신안 출신인 D씨는 A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지역 내 인맥을 바탕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4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수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통장에 찍힌 내역이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일 뿐이고 실제로 그의 가족이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목포=정혜선기자

북구, ‘환자 생계급여 유용’ 요양병원 관계자 수사 의뢰

광주 북구가 관내 한 요양병원 입·퇴원자들의 생계급여가 반복적으로 비정상 인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북구는 1일 “2023년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한 6명의 계좌에서 수차례 출금·재입금이 반복된 흔적을 확인해 북부경찰서에 수사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3명은 현재 입원 중이며, 이 가운데 1명은 신안 염전 피해자다.
퇴원한 3명 중 1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는 지난날 28일부터 조사에 착수, 급여관

리인으로 지정된 교회 장로가 아닌 교회 목사가 300만원 상당을 여러 차례 인출한 뒤 다시 넣은 것으로 파악했다.
구는 잔액 일부만 반복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문제로 보고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관리자로 지정된 장로 역시 계좌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황이 있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북구 관계자는 “급여관리인이 아닌 제3자가 반복적으로 계좌를 건드린 점이 부적절하다”며 “정확한 경위를 경찰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찬웅기자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탑사 유가족협의회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공청회 및 중단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체포영장 집행 중 피의자 도주

광주·전남경찰청 공조 추적 중
수감 등 절차 준수 여부 도마 위

광주지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해 수사 기관이 쫓고 있다.
1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하던 중 A(40대)씨가 달아났다.
앞서 광주지검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던 중 그를 발견했고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다 A씨가 짐을 챙기겠다고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시동을 걸고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 한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자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추적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은 A씨를 체포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경위를 언급하기 어렵다”며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주 전 A씨는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체포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안재영기자

광주 남구의회 행감 첫날 ‘차질’

광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남구 공무원 노조가 일부 의원들의 과다한 자료 요구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 농성 등을 벌여 회의가 지연 개회됐다.
1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2시50분께 시작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오전 9시30분께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피켓 농성을 전개했다.
이번 농성은 일부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다고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오전 10시께부터 남호현 의장은 노조와 면담을 가졌다. /서형우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블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리처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리처리 중상급자용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